

# 장애인도 여행 가고 싶다!

## 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2.08.26. \_ Vol.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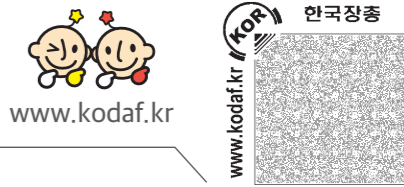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신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협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장애인도 여행 가고 싶다! 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장애 관광 역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무장애 관광의 현실을 알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고 오히려 민간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민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01 실효성 없는 장애인 관광 관련 법 현황

###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2(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리고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 장애인 관광활동에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동수단 마련 등은 기본적인 필요사항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02 장애인 관광 활동의 현주소

### ■ 1년간 장애인 10명 중 8명 여행 경험 전무

- 2021년 국내여행의 연간 경험률은 93.9%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89.0%, 기타여행은 71.3%로 분석됨. 2020년 대비 국내여행 연간 경험률은 7.5%, 관광여행은 13.5%, 기타여행은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1</sup>
- 장애인의 여행 경험을 분석한 결과, '여행 다녀온 적 없음'이 86.5%로 가장 높게 조사됨. 국내여행은 12.6%, 국외여행은 1.5%에 불과함
-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경우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2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의 장애 치료나 재활로 인해(18.7%)',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sup>2</sup>
- 여가 활용에 있어 비장애인 3.8%, 장애인 2.5%가 주중에 관광·여행 활동을 함. 특히 주말에 관광·여행에 참여한 비장애인은 17.2%인 반면 장애인은 7.1%에 불과함<sup>3</sup>

### ■ 여가활동을 하더라도 대다수 불만족

-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 장애인(89.4%)은 주로 'TV 시청'을 하는 반면 '해외여행(0.9%)', '문화예술 관람(2.0%)', '여행(5.4%)과 같은 문화·여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이 51.1%로 과반수 이상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26.3%)',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의 불편 등 '이동의 불편(15.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sup>4</sup>

### ■ 정부 주관 장애인 관광정책의 낮은 인지도, 전담인력과 예산도 현저히 부족

- 장애인 여행 관련 정부와 민간 지원 내용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로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은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장애인 여행사업의 경우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룸<sup>5</sup>

1 2021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22.06.13.)  
 2 2020년 장애인살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2021.12.31.)  
 3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보건복지부(2020.07.24.)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1.12.22.)  
 5 장애인 관광여행 만족도 비교분석 통계결과, 기아 초록여행(2021.10.18.)



구분	조사결과	조사결과
(정부) 열린 관광지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64.5% 27.9% 7.6%
(정부) 여행바우처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44.2% 36.0% 19.8%
(정부) 장애인가족 휴양지원사업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56.4% 29.3% 14.3%
(정부) 산림복지이용권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48.1% 25.5% 26.4%
(정부) 산림휴양시설 우선예약 및 할인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41.2% 34.0% 24.8%
(민간) 교통수단 대여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8.1% 24.5% 67.4%
(민간) 여행용 수전동 휠체어 대여	잘 모른다 들어본 것 같다 잘 알고 있다	27.4% 36.2% 36.4%

- 현행 관광진흥법은 국가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무장애 관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나 담당 인력은 미비한 상황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무장애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0.9% 수준(6명)이며, 이마저도 장애인의 이동, 숙박, 관광 정보 등 전 영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열린관광지 사업만의 담당자들임
- 또한 무장애 관광 예산은 전체 예산액 대비 0.5%(22억 2,600만 원)에 불과한 수준임. 장애인의 관광 욕구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관광 분야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전담 인력과 예산은 극히 미비한 실정임

### 03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관광정책과 사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 이용권을 발급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및 체육 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05년 이후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스포츠 이용권, 여행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분화되어 시행되었으나 이용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 이후 통합되어 시행 중임
- 제도 통합 전 여행이용권은 여행경비를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나, 현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연간 1인당 2022년 기준 10만 원을 지원하여 통합 전과 비교하면 실제 관광 및 여행 분야의 지원 금액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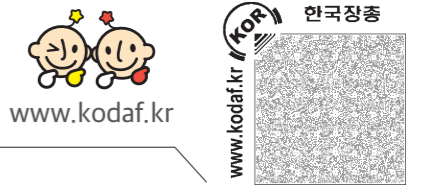
####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사이트

- 한국관광공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관광 욕구 충족과 관광 기회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https://access.visitkorea.or.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전국 7,700개의 무장애 여행지와 함께 추천코스, 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원하는 편의 정보를 선택하여 여행지를 검색할 수 있는 ‘무장애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제공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2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관광 권역의 관광지 20개소 선정(▲인천광역시, 개항장역사 문화공원·월미문화의거리·연안부두해양광장·하나개 해수욕장 ▲충청북도, 청주동물원·명암유원지·청풍호반 케이블카·청풍호유람선 ▲전라북도, 마이산도립공원



남부·마이산도립공원복부·전주동물원·전주남부시장·덕진공원·광한루·남원항공우주천문대·변산해수욕장·모항해수욕장 ▲충청남도, 예당관광지·대흥슬로시티·봉수산자연휴양림장)6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열린관광지 4곳, 일반 관광지 4곳을 비교한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열린관광지는 3개 영역(정보 환경, 물리적 환경, 관광환경)에서 모두에서 평균 1.6점으로 일반관광지 평균 1.3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을 뿐 두 관광지 모두 1점대에 불과함.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관광자원을 모두 향유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지금까지 지정된 열린관광지의 접근성 개선 사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미비한 실정임7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 2022년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관광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도입, 민간시설과의 협업 등을 통한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숙박, 식음료, 쇼핑)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둬
- 여행 접근성이란 특정 여행지만 변화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무장애 환경으로 변화해야 원활한 무장애 여행이 가능함. 그마저도 2022년에서야 1개 도시(강릉시)를 선정해 시작하는 점은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6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8.06.30.)  
7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관광지 정책? 장애인은 넘사벽, 더인디고(2020.04.22.)  
8 무장애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여행사, 협동조합,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화상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의 생동감을 전달하고자 서술체로 기재함

## 04 무장애 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민간 사례8

### ‘무빙트립’ 신현오 대표

#### 무빙트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무빙트립은 배리어프리 전문 여행사로 장애인 ‘만’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닌 장애인 ‘도’ 할 수 있는 여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빙트립의 콘셉트는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슬로건은 “하고 싶은 여행을 만들자”,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 전문 여행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여행을 기획해왔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싶었습니다. 예로 들면 식당의 경우 보통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여부에 따라 동선을 구성하는데, 맛집이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무빙트립은 계단이 있는 맛집이어도 경사로를 설치해주거나, 좌식이면 입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들이나 박물관 등 관람형 여행 상품이 시중에 많은데, 무빙트립은 관람형 여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고 하고 싶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 경험, 설립 배경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손도 불편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인데, 처음 갔던 여행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며 발아래 휠체어가 보이는 순간 엄청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당시



느꼈던 자유로움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이 여행을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고,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니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무빙트립은 교통, 인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여행에 있어 풀컨시어지(Full concier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여행을 이루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무빙트립은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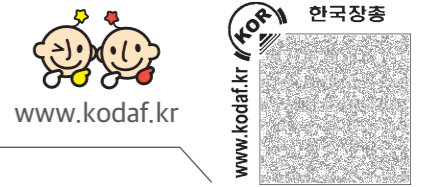
- 무빙트립 사업에 빠질 수 없는 강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질적인 정보공유입니다. 정보공유에 있어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120x120의 폭이 나와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맞게 나와도 안전바의 방향이나 문의 위치에 따라 휠체어가 들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 활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불편이 따를 수 있기에 현장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고객들과 쌍방향으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체험형 활동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해보고 나서는 역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빙트립만의 살아있는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전국 서포터(supporte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객이 혼자 여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비장애인인 가족 혹은 지인과 함께 신청하는데, 가족과 지인들은 고행이라고 할 정도로 여행을 즐기기보다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를 보며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워너비 캠핑’이라는 캠핑 여행, 특수 휠체어를 활용하여 갯벌 체험 여행 상품 등을 개발하여 장애인 고객과 함께하는 가족, 지인 혹은 서포터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포터는 자원봉사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원봉사자로 하게 되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어 별도로 무장애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포터로서 비용을 받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무빙트립의 전반적인 여행 콘텐츠 생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전문 여행사와 방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 여행사에 의뢰했을 때 보통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무빙트립은 ‘재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여행하고 싶은 욕구, 가고 싶은 곳이 똑같은데 “몸이 불편하니깐 넌 눈으로만 관망해”, “방문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만 가야 해”와 같은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요구를 맞춰줄 여행사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재미있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행 콘텐츠 개발에 있어 꼼꼼히 3번 정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갯벌 체험의 경우 다양한 갯벌이 존재하는데 ① 갯벌 바닥 모래가 딱딱한지, 평평한지 ② 휠체어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깊이가 빠질지,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할지 ③ 비장애인 분들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④ 갯벌에 나와 어디서 씻어야 할지 등 일일이 답사해서 3번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쌓은 살아있는 정보로 고객에게 여행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무빙트립 여행 상품을 참여했던 고객들이 직접 가고 싶은 곳을 계획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도 확장하여 보고 있습니다.

### ■ 무빙트립 여행 상품 중에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여행을 구성해주는 ‘여행 레시피’상품이 가장 돋보였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여행 레시피를 구성하시는지, 여러 유형 중 중복장애인은 어떻게 여행 레시피를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홈페이지를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발달장애, 그 외 장애/중복장애별로 레시피



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 희망 여행지, 여행 일정, 총인원, 예산 범위, 여행 테마, 장애인 객실 필요 여부 등 직접 경험하며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의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이 정보로 여행 레시피를 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 초반에는 질문 개수가 훨씬 많았지만, 고객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현재 질문들처럼 일차적인 데이터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데이터를 받아 추천 여행지의 포인트를 잡고, 이후 전화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복장애인 여행 레시피 구성은 시·청각장애인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시·청각장애인은 보거나 들을 수 없기에 촉각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림을 그리는 여행 활동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요. 시·청각장애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인 캔버스 도화지가 아니라 양쪽 면 느낌이 다른 한지로 바꾸고, 손에 유화를 묻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느낀 것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행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배리어프리 여행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장애인이고 몸이 불편한데 할 수 있어?”, “장애인이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어?” 등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빙트립을 설립하고 지난 4년 동안 “할 수 있어”라는 말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과정을 지속해서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조차도 여행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패러글라이딩이나 스킨스쿠버와 같은 활동도 할 수 있는지 모르니 시도를 못 해보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재되어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선택지를 많이 넓히고 싶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님이 휠체어를 타신 아버님을

모시고 온 사례인데, 아버님이 패러글라이딩 같은 활동을 하고 나서 “꿈으로만 꿨던 일들을 현실로 이뤄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은 모티브이션(Motivation)이 되었고, 무빙트립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대상 여행 지원 사업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국 민속촌에 데려가서 한 바퀴 돌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인원만 채워서 진행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린관광지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신경을 쓰는 반면에 민간에서 개발하는 콘텐츠 지원에 관한 관심은 적습니다. 콘텐츠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으면 비장애인들은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두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콘텐츠 쪽으로도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 늘어나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 모집, 경연대회 형식의 무장애 여행 콘텐츠 발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점검 및 모니터링, 나아가 팸투어까지 진행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간 기업은 이익, 지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주도하여 여행 콘텐츠 발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들이 밖으로 자주 나오는 세상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앞으로의 계획과 무장애 관광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직접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아내, 친구들이랑



-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큰 걱정 없이 장애인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 나아가 VR, AI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는 기술들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오프라인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볼 생각입니다. 무빙트립의 향후 계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건 장애인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플랫폼을 통해 여행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이지만, 무장애 여행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장애 여행 활성화하면 장애인만 득 보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자연스레 몸이 불편할 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덧붙여 해외에 나갔을 때 되게 놀랐던 부분이 그 나라 사람들은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볼 때 다른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장애 여행을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직접 겪어보며 인식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빠른 지름길 같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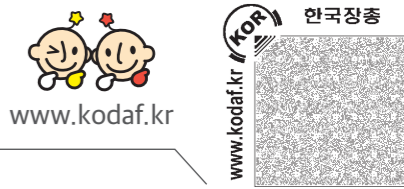
**‘아라모아 사회적협동조합’**  
**김희천 이사장, 김배균 이사, 김송하 팀장**

- **사회적협동조합 아라모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여행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여행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처럼 마음대로 여행지를 가거나 휴게공간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오르내릴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르내릴 수 없고, 대소변을 참거나 아예 생리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먹는 것을 자제하기에 장애인 여행은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도움 없이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는 휠체어 관광버스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과 함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라모아를 설립하였습니다.
- 우리의 비전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더 나은 문화 활동,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가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더 많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아라모아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 아라모아의 주 사업은 휠체어리프트버스 운행사업 및 장애인 테마 여행사업입니다. 휠체어리프트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국으로 교통약자의 여가 활동 참여기회를 높여 여행의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허용하고 사회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대여 요구가 있을 시 일정상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지원 운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희가 속한 지역인 거제에서 무장애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타지역 교통약자나 비장애인들이 거제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장애인 여행객의 무료한 저녁 시간을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지역 가수를 초청하여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 디너쇼도 병행하여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품 개발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숙소입니다. 우리나라 숙소 대다수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숙박업소 견폐율에 따라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인 단체관광객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아라모아에서는 지역별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숙소를 현장 방문하여 해당 숙소와 MOU를 체결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여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는 여행 가이드입니다. 국내에는 장애인 전문 여행가이드가 부족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 여행가이드가 안내하면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로 들면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속도에 맞추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이 정확해야 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비장애인에게 안내하듯 관광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장애인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라모아에서는 장애유형별 여행가이드 양성 교육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최근 전윤선 대표와 열린문화관광지 팸투어를 진행하셨는데요. 팸투어 코스를 돌며 느낀 점과 앞으로의 팸투어 계획이 궁금합니다.**

📍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 노자산전망대**

- 전윤선 대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마산역 도착 후 아라모아 버스로 투어를 진행하였는데, 첫 일정은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거제 노자산전망대에서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케이블카는 전동휠체어가 바로 탑승할 수 있어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지만, 전망대가 커피숍이다 보니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게 되면 실내에서 휠체어 이동 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상부 탑승장에서 외부 팔각정 전망대까지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 전망대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여 산 정상에서의 전경을 보지 못합니다. 기존의 관광지 시설물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지만 새로이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는 곳은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모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다대다포항 후릿개다리**

- 해안을 따라 바다를 가로질러 길게 산책길 형성하여

다포항과 다포마을까지 연결하였는데 이 다리를 후릿개다리라고 합니다. 전윤선 대표는 본인의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긴 해안가의 산책길은 완주하였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품에 품고 힐링할 수 있고, 거제도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 **해금강**

- 바다의 금강산을 뜻하는 해금강의 주위 경관으로는 십자동굴, 사자바위, 부처바위, 촛대바위 등 기이한 암석과 환상적인 일출과 월출로 유명한 일월봉도 있습니다. 또 해금강 주변 섬을 도는 유람선이 장승포, 해금강, 도장포, 학동, 구조라, 와현 등지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유람선이 없기에 전윤선 대표와 아라모아 직원들은 해금강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 거제도의 대표 관광지가 해금강, 외도임에도 해상수송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변화무쌍한 해상기상의 특수한 조건이 있지만, 육지에서처럼 저상버스 도입이나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등의 교통 수단으로 해결되는 사안을 보면 해상수송에 있어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해결의 실타래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미성**

- 매미성은 2003년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한 시민이 20여 년간 홀로 쌓아 올린 벽 구조물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네모반듯한 돌을 쌓고 시멘트로 메우길 반복한



것이 이제는 유럽의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성이 됐는데요. 설계도 한 장 없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하며, 지금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루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외국의 유명한 휴양지와 견주어 볼 만합니다.

- 다만 아쉬운 점은 매미성까지 연결도의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지금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라서 공사 중에는 출입이 불가한데, 지정 휴무일이 없어 공사 중 방문 시 출입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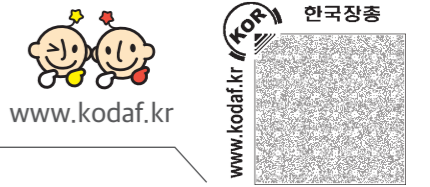
📍 거제식물원

- 거제식물원은 지역의 식물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난대, 온대 등 다양한 환경의 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고품격 체험·연구·전시·교육·휴식의 공간입니다. 또한 10월에 지역대표 축제인 거제섬 꽃축제 기간에 맞추어 관람한다면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이렇게 노자산전망대부터 거제식물원까지 뜻깊은 팸투어 여행을 보냈습니다. 아라모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무장애 여행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제도뿐만 아니라 국내 무장애 여행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보니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난관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 사업 진행 초기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을 때 거제시청과 거제시의회에 여러 차례 아라모아의 사업 설명도 하고 지방자치 보조금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할 방안이 없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정식인가를 받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초기에는 조합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신 분들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다들 출자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직원 임금부터 관리비까지 출자금이 적다 보니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 운영개선의 해답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조합의 상호를 달고 움직이는 매개체가 있어야 했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휠체어리프트버스입니다. 자본금의 바닥이 보이는 힘든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휠체어리프트버스를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발췌하여 거제시의회를 찾았으나, 역시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 이때 무장애 여행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무장애 여행사업과 같이 행정에서 해야 할 사안을 민간단체에서 하겠다는데 이것조차도 제도적인 절차를 논한다면 “지역의 교통약자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생을 마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조합원 중에 전세버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 휠체어리프트버스를 신중 차량으로 구매하면 3억 5천만원의 거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세버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제공받아 구조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약 5천만 원가량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사님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 출자하여 지금의 아라모아 휠체어리프트버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아라모아 휠체어리프트버스는 타기관의 휠체어리프트버스와는 실내구조가 다릅니다. 장거리 여행 시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시트배열을 구조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모아 휠체어리프트버스는 운전석 1개,



보조석 1개, 시트 27개, 전동휠체어 구역 4개로 승차정원은 33명입니다. 수동휠체어 사용자는 시트 사이 통로로 이동 후 자력으로 시트로 옮겨 앉고 휠체어는 트렁크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지금과 같은 시트 구조변경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구조변경을 승인받아 국내 최초로 위 사진과 같은 구조의 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용을 했다면, 교통약자들은 차량 내 시트에 앉기 위해 안기거나 업혀야 했을 겁니다.
- 일반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버스 승·하차 시 안기거나 업히기에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돕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이에 그동안 휴게소에 들리면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라모아 휠체어리프트버스를 타고 갈 때는 휴게소 들리는 게 관광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아쉬운 점을 생각하면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거제 기점 출발이다 보니 공차 거리가 멀어, 전국으로 이동 시 공차운행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보조금으로 부담 혹은 자부담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차량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 마련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또 전국으로 투어를 다니면서 힘든 부분이 관광지나 휴게소에 정차할 때입니다. 주차면을 대형차 기준 2개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복잡한 휴게소나 관광지에서는 승·하차가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차량을 많이 접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버스가 휠체어리프트버스 옆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리프트버스가 안전하게 주차를 하여 탑승객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버스 주차구역을 지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여행을 기획하는 단체 중에서 숙박업소 시설면이나 이용환경이 편한 곳을 이용하고는 싶은데, 한정된 보조금으로 숙박업소를 정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렴한 시설이 불편한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행사보조금도 지자체장이나 행정 실무담당자가 생각해 할 부분이며, 생색내기 행정보다는 현실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앞으로 무장애 관광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두에 소개된 매미성이 있는 북항 마을은 빈집이 늘어나면서 공동화되어 가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한 시민의 노력으로 매미성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자 지자체에서는 주차장도 만들고, 공용화장실도 만들고, 찻집도 들어서게 되니 지역경제도 발전했습니다. 매미성이 처음 축조될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변화를 예상했을까요? 한 시민의 노력이 마을 전체를 살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식형 식당은 테이블식 식당으로 교체, 계단이 있는 곳은 경사로 설치, 화장실 문턱 제거, 변기 옆에는 안전바 설치 등 휠체어 통행이 편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첫걸음마일 것입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당사자나 장애인 가족이 여행 시 불편함이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안이 무엇 인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 무장애 여행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자문을 지속해서 구해 하루라도 마음 편히 먹고 숙박할 수 있는 여행 도시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 사례가 증가하고, 도시 정비를 우선순위에 하에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매미성과 같은 무장애 여행지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 믿습니다.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운선 대표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는 관광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접근가능한 관광의 촉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관광약자의 관광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여행함에 있어 물리적,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 여행 활동에 제약이 없고 보편적인 여행이 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여행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 '모두가 접근가능한 평등하고 공정한 보편적인 여행'을 만들고자 모든 시설물에 접근 가능한 여행 (물리적 접근성), 관광약자의 맞춤형의 가공된 정보제공(정보적 접근성), 여행 소비자로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는 여행(서비스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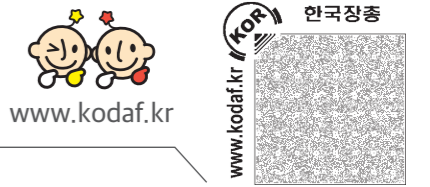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 우리 단체에서는 이동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대여하거나 또한 보장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차량과 보장구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보편적 이용해 여행지까지 이동하고, 여행지 내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는 접근권 확대를 위한 권익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법제도 정책연구 및 개발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국내외 학술 및 우수사례 교류사업, 접근성 기준 개발·모니터링·인증·컨설팅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광산업 종사자인식개선 교육사업, 관광정보 관광콘텐츠 발굴 및 On-Off-line 제공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팸투어, 무장애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장애 여행지로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무장애 여행지는 장애인이 '가고 싶은' 여행지와 '가기 좋은' 여행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는 누구나 선호하지만, 이동의 접근성이 미비하고 막상 여행지에 가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로 낙인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경남 산청, 전북 진안 등입니다. 앞서 나열한 곳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동의 접근성이 열악하다 보니 관광약자가 많이 찾지 않아 관광지 편의시설, 편의 객실이 있는 숙박업소, 접근가능한 식당 등이 제한적이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 가기 좋은 여행지는 대중교통, 여행지 접근성, 식당, 화장실, 숙박 등 여행 사슬 끊김이 적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면 가기 좋은 여행지로 선호하게 되고, 장애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됩니다. 부산, 대구, 인천, 여수, 제주 등 기차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기차역에서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행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게다가 앞에 예시로 말한 지역은 저상시티투어버스 운행지역이어서 이동의 걱정 없이 지역의 메인 여행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첫 번째 무장애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국민관광지답게 여행의 기본 이동에 있어 다인승 차량이 운행되고 장애인 콜택시도 즉시콜입니다. 또한 저상시티투어버스를 공항에서부터 제주 메인 여행지까지 운행이 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보장구 대여와 장애인 전문 여행사도 있고, 트레블헬퍼 인력 지원까지 여러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 두 번째 무장애 여행지는 부산과 강릉입니다. 두 곳은 KTX 등 기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된 곳입니다. 부산은 지하철과 저상시티투어버스,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즉시콜, 다인승 차량 예약제 등 이동에 있어 강릉보다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행지 접근성과 숙박, 화장실, 식당 등에서도 강릉보다는 우수합니다.

- 강릉도 KTX가 운행되는 곳이지만 강릉 시내이동권에서 열악합니다. 다만 열린관광지(정동진모래시계공원, 안목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통일공원, 솔향수목원)가 많고 2022년 4월 '열린관광도시'로 선정돼 무장애 관광지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 세 번째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는 수협효시공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평화파크, 칠천량해전공원 등 열린관광지가 조성된 곳이고, 이외에도 무장애 여행지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단, 거제도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무장애 여행을 다니면서 장애인 관광의 여러 문제점을 체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여러 가지 사업 중 열린관광지와 비열린관광지의 접근성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열린관광지와 조건이 비슷한 관광자원을 가진 곳을 선정해서 모니터링 후 비교분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비교할 때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장애인 모니터링 단원이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동의 접근성 때문에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 중에도 예산안에서 개선 사업하다 보니 열린관광지라는 명칭이 무색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열려가는 관광지"가 더 정확한 명칭일 때도 있습니다. 제도에 막혀 열린관광지 조성이 한계를 드러내는 곳도 많습니다. 전국 112곳의 열린관광지 중에 케이블카 자체가 여행 콘텐츠이어서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도 있는데, 바로 통영한려해상케이블카, 제천청풍호반케이블카입니다. 이곳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케이블카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열린관광지 지정의 모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 열린관광지로 선정됐으면 지속해서 관리해야 함에도, 지자체는 선정에만 노력하고 사후 관리에는 관심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곳도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무장애 환경조성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쫓 빼버린 물리적 접근에 불편 없는 나머지 관광약자만을 위한 관광환경을 구축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 물리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접근성에서 여러 가지 해악을 낳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정보접근성과 서비스 접근성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이 먼저 시작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서 당사자를 뺀 나머지 관광약자만을 위한 환경 조성은 무장애 관광으로써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05 해외 주요 관광 국가의 무장애 관광정책

### 미국(건축장애물제거법과 장애인 모범도시 선정)

- 미국의 건축장애물제거법(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새로 건립되는 시설이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되도록 했음
- 1980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 정부는 장애인 관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 관광 시장을 주요세분시장으로 부각하고, 관광업계에 시설 접근성 개선을 독려하는 등 관광장애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교통시설, 박물관, 식당, 극장 등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되어 관광 부문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음
- 또한 전국장애인협회(NOD)는 장애인을 위한 미국



대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디자인 등이 우수한 도시를 평가하여 장애인 모범 도시를 선정하고 있음

일본(적합증 제도, 하트빌딩법과 배리어프리법)

- 일본 도쿄도는 1996년부터 복지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적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것은 의무가 아닌 자율 신청에 의한 것으로 62개 도쿄도내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 건축물은 하트빌딩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으며, 교통수단은 배리어프리법에 의해 권장되고 있음. 또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신법은 보다 강화된 건축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건물 면적이 2,000㎡ 이상인 규모의 건물에서는 배리어 프리화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이타마현에서는 배리어프리화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복지마을 만들기과 적합증 제도를 조례화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적합증 제도는 규정된 체크리스트로 대상 건축물을 검사하여 복지마을 만들기 담당 부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체크리스트 항목에 100% 만족해야 적합증이 발급됨. 적합증을 발급받으면 도청 홈페이지에 발급받은 건축을 게시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홍보를 해주며 유효기간은 5년임

독일(건축법과 DIN 표준규격 규정)

- 독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독일 건축법과 DIN(Deutsche Industrie Normen, 독일의 표준규격 규정이며 우리나라의 KS와 같은 규정)이라고 하는 표준제도임
- DIN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독일의 거의 모든 건축가가 예외 없이 DIN을 적용하고 있으며 DIN 규정 적용에 의해 건축물 대부분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어지고 있음
- 독일의 표준 제정기관 DIN의 부속기구인 DIN CERTCO에서는 주거 건물, 공공건물, 공공장소, 교통 분야, 제품 등이 배리어프리 기준을 만족할 경우 배리어프리 인증마크 DIN을 수여하고 있음
-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무장애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자발적이면서 의무적인 형태로 변화해 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정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모두가 세계의 선진 관광 국가로서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모두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무장애 관광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시 관광 이미지와 인프라 측면 모두에서 관광의 선진화 및 고품질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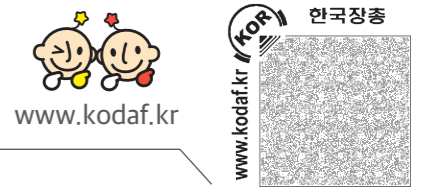
06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의 개정을 통해 관광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5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사항은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음
-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 등의 사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이용에 장애인 등 관광약자 모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과 같이 의무를 강화하는 조문을 명시해야 함

장애인문화체육관광진흥법 제정 및 무장애 관광 컨트롤타워 설치

- 무장애 관광도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부처 명칭상 '문화체육관광부'임에도 관광만 컨트롤 타워가 없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문화예술원 두 곳은 컨트롤타워가 작동해 안정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 문화, 체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지금까지 소외된 장애인 관광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으로 장애인의 관광 욕구를 충족해야 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체육관광을 전담할 장애인문화체육관광국 신설이 필요함
- 세 가지 분야로 흩어진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곳이자 무장애 관광 컨트롤타워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 국장은 공무원, 과장은 개방적으로 장애인 전문가를 채용해 장애 대중과 소통 강화로 보편적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문화체육관광진흥법' 제정도 병행되어야 함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개선

- 지난 정부에서 무장애 여행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열린관광지 112곳, 열린관광도시 1곳이 조성돼 무장애 여행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열린관광지 130곳, 열린관광도시 13곳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함. 이처럼 무장애 여행을 지속해서 시행하려면 열린관광지 조성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소비자 중심으로는 각 지역 관광지를 대상으로 어느 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조성되면 좋을지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함. 그 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관광지를 지자체와 논의해 열린관광지 조성해야 함. 이를 통해 만족도 높은 소비자 중심의 무장애 관광지로 변화해야 함

여행바우처 재도입 및 확대

- 2013년 폐지된 여행바우처 재도입이 필요함. 당시 여행바우처 금액은 15만 원으로 1회 여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아도 자부담을 보태면 여행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여행바우처 금액을 소비할 무장애 여행 환경 미비로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었음. 가장 큰 걸림돌은 바우처카드를 결제할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여행의 기본인 이동부터 장벽에 부딪혀 장애인이 여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
- 이후 2014년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으로 무장애 여행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이제는 정작 여행할 돈이 없는 실정임. 무장애 여행 환경조성과 함께 무장애

여행산업의 소비자로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경비(정부, 기업 각 10만 원 적립)만큼 장애인에게도 여행바우처 금액을 지원해야 함

-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선별해 나눔여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나눔여행에 선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시혜적인 일회성 관광 성격으로 실질적인 여행의 긍정적인 효과도 낮음. 관광약자도 소비자로서 보편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바우처 제도 재도입 및 확대가 시급함

저상시티투어버스 지자체 의무도입

- 노후화된 시티투어버스 교체 시 저상시티투어버스로 의무 교체해야 함. 현재 저상시티투어버스가 운행하는 곳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여수, 군산, 제주 등 10곳 안팎임. 이마저도 시티투어 코스 일부에만 운행에 그침
- 2019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은 권역으로 선정해 조성되고 있지만, 열린관광지로 연결되는 이동수단의 부재로 열린관광지마저 관광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여행의 기본은 이동임을 인식하고, 지자체별로 저상 시티투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무장애 여행사 BF인증제 도입

- 무장애 여행사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지만 장애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극히 드물. 여행상품은 쉽게 복제되지만, 실질적인 인적·물리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여행사가 많아지고 있음.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안전에 지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트레블헬퍼, 간호인력 등 구성뿐만 아니라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수료, 장애인 인권교육 등 1년에 2회 이상 의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리프트 차량과 보장구 지원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춘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BF 인증이 되어야 만이 장애인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음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8월 26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인권상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당신과 함께 만듭니다”



### 후보자격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기업

###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2. 8. 16.(화) ▶ 9. 16.(금)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kodaf.kr](http://www.kodaf.kr)  
- '한국장애인인권상' 클릭

문의 | 02-783-0067

### 시상부문

- 인권실천부문(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장상, 상금 1천만원)
- 국회의정부문(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장상)
- 민간기업부문(보건복지부장관상)
- 기초자치부문(국회의장상)
- 공공기관부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

### 시상식

일 시 | 2022. 12. 2.(금) 14:00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

한국장애인인권상은 3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해 온 개인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107건(개인 38건/단체 69건)을 발굴·포상해왔습니다.